



연중 제19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트워스 신부님과 함께 산타페에 다녀왔습니다. 산타페라는 말은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길도 살피고, 숙소도 정하고, 일정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길을 떠나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에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운전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는 믿음, 피곤할 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산타페, 곧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도 잘 어울립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1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사목국에서 교육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방동 성당에서 구역장, 반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 강의 시간은 오후 4시였지만, 미리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시에 강의하러 오실 신부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몸이 피곤해서 잠시 불가마 사우나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손님 중에 조재형 씨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우나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2시에 오기로 한 신부님이 길이 막혀서 늦는다고 연락하셨습니다. 봉사자는 제가 성당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제가 먼저 강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모상 앞에도 제가 없고, 성체 조배실에도 없고, 사제관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가마 사우나에 연락했고, 저는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성당으로 돌아와 먼저 강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깨어 있다는 것은 늘 긴장하고 불안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며,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잠시 쉬고 있었지만, 불러 주는 소리를 듣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묶인 이를 풀어 주며, 눈먼 이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이를 자유롭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

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마귀 들린 이를 해방해 주셨고, 병든 이를 고쳐 주셨으며,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베 짜타 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리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던 여인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였고, 중풍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으며, 눈먼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화려한 궁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곁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 아픈 이, 외로운 이, 죄인, 마귀 들린 이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만 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리고 더 깊이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고 있는가? 믿음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삶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 주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내면의 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믿음은 믿음은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봉사자가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신자가 아픈 이웃을 찾아가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오 복음 25장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믿음은 가난한 이에게 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외로운 이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병든 이에게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용서받지 못한 이에게 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당 안에서

만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길 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꽃은 피어있습니까?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게으름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시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산타페, 곧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한 믿음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6월 2026 본당 재정 현황		
수입	주일헌금	\$24,675.00
	교무금	\$35,780.00
	여름 캠프 참가비	\$4,900.00
	매일 미사 및 성물방 판매	\$2,249.00
	특별 헌금 및 기타수입	\$1,767.04
수입총액		\$69,371.04
지출	급여	\$15,349.00
	보험및 연금	\$8,248.04
	성당 관리비 및 유지비	\$352.63
	교구청 의무 납입금	\$5,914.56
	전문 용역비	\$158.45
	건물 및 상해 보험	\$2,736.85
	사목 분과별 운영비	\$14,571.08
	사무 및 일반 관리 / 유지비	\$8,343.90
	자동차 관리비	\$539.86
	공공요금 및 회비	\$3,354.45
	은행수수료	\$56.00
	지출 총액	\$59,634.82
6월 2026 순 손익		\$9,736.22
25년 ~ 26년 회기 결산 누계		\$18,279.68
6월 건축헌금 합계		\$1,087.26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경순(요안나), 기길자(투치아), 김선미(소피아), 김성희(글로리아), 김연우 제이든(요셉), 김외분(프란체스카), 김지연, 마하레(스텔라), 서지연(로사), 손현식(미카엘), 손현우(가브리엘), 안길승(가브리엘), 양영도(이나시오), 엄찬길(찰스), 오안선(릿타), 윤지희(미카엘라), 이복순(카타리나), 이에린(세실리아), 이영준(파파엘), 임원옥(크리스티나), 전용환(요한), 정상옥(젬마), 정성문(요한), 차형래(데레사), 하정희(올리아), 한제민(야고보), 허순희(젬마)

공지사항

2026년 사목 목표

1.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지난 50년의 감사와 기쁨을 새깁니다.
2. 성령의 친교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3.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친교실 확장과 사제관 신축을 준비합니다.
4.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영성·문화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5. 감사·친교·나눔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전합니다.

장명화 수산나 수녀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식 : 8/8(토), 8/9(일)

- 성모승천 대축일 (의무대축일)

일시 : 8/15 (토) 5pm

-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중남부 남성 제18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힘과 기쁨을 얻는 은총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를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너 어디 있느냐?" (창세 3,9)

일시 : 9/3 (목) ~ 9/6 (일)

지도사제 :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

대상 : 건진성사 받으신 남성

신청비 : \$ 390

신청 마감 : 8/15 (토) 까지 성당 사무실

문의 : 달라스 울뜨레아 간사

박성아 소화데레사 214-770-6496

- 2026-27학년 주일학교 등록
주일학교 개학 : 9/13 (일) 10시
(2026 가을학기- 2027 봄학기)
등록기간 : 7/12(일) - 8/30(일)
대상 : 만 5세 - 12학년 (9/1 기준)
등록금(1년) : 1자녀(\$120),
2자녀(\$220), 3자녀(\$300)

문의 : sundayschoolsak@gmail.com

주일학교장 이숙 글라라

469-831-9371

부분과장 송지은 안젤라

214-664-0158

주일학교 등록



- 2026-27년 벤자민반 등록
개학 : 9/13 (일) 10시
등록기간 : 7/19 (일) - 8/30 (일)
대상 : 만 3 - 4세 (9/1 기준)
등록금(1년) : \$100
문의 : 송주원 바오로 518-227-8332

- 2026 유스 그룹, 견진반 라틴
일시 : 8/14 (금) 7pm - 8/15 (토) 7am
장소 : 성당 친교실
참가 대상 : 7학년 - 12학년

참가비 : \$10 (Cash or Venmo)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등록 기간 : 8/12 (수) 까지

문의 : 장시준 다니엘

sakdalla-

syouthgroup@gmail.com

유스그룹
라틴 등록



- 2026-2027 예비신자 교리 모집
시작일 : 9/13 (일), 10시 미사 후
장소 : 교리실 C117
신청 : 8/30 (일) 까지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문의 : 임진명 요셉

joseph.lim@dallaskoreancatholic.org

7/30 까지 묵주기도 집제	102,065단	점심 봉사	W 플레노
--------------------	----------	----------	-------

- 2026 안전교육 안내
대상 : 성당 봉사자 (연 1회 재교육 필수)
일시 : 1차 8/9 (일) 11:30am - 1pm
2차 8/16 (일) 1pm - 2:30pm
방법 : 1, 2차 중 한 번 참석,
신규와 재교육 대상자 함께 진행
온라인교육 가능
www.virtusonline.org/virtus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

문의 : 김안나 469-237-7930

akim112@gmail.com

- 도서실 봉사자 모집
도서실 정리 및 대여시스템 정비를 위해,
도와주실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도서정리,
라벨붙이기, 도서 스캔(프로그램 입력) 등
(7월말 ~ 8월사이, 10명)
봉사자신청 : 972-743-2292

- 청년 영어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 안내
첫 모임 : 8/9 (일) 1pm
대상 : 18세 이상 청년
일시 :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1-2pm
장소 : 유스그룹 방 C109
문의 : 장시준 다니엘 817-891-9382

- 라파엘 장애인 수업 등록 안내
대상 : 발달 장애인 9학년 - 39세
개학 : 9/13 (일) 10am - 11am
장소 : 교리실 B104
등록비(1년) : \$120
등록문의 : 백장미 로사리아 806-787-7898

- 본당의 날 장터 참가자 모집
다가오는 본당의 날에 장터를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 9/20 (일) 11:30 am - 1:40 pm
신청 마감 : 8/30 (일)
신청/문의 : 이상권 스테파노 702-812-1208

건축헌금		교무금					
		정순구, 송동숙, 김원희, 정영철, 최연, 김관호, 이정구, 장하운, 정기수, 정성룡, 고광범, 김덕원, 어찬, 이명옥, 서경혜, 이선여, 황일규, 허영근, 윤원구, 백기선, 김귀연, 변요섭, 김용환, 함미애, 오영주, 김수일, 이영기, 이선예, 이재훈, 문혜숙(4), 유태호, 주상우, 김용성, 김정훈, 이상엽, 박준영, 서정근, 이강원, 김상희, 김중분, 정경희, 김성순, 김미옥, 주재억, 유동호, 송강필, 이광현, 이병규, 한익수, 전남숙, 한준웅, 이혜영, 최희진, 강종일, 김봉현, 김현옥, 김수용, 김광현, 정연희, 한석조, 이정철, 이광휘, 김순영, 박수근, 최관호, 김중천, 권상훈, 권무삼, 이채임, 유길중, 신혜원, 서경옥, Thomas Lee, Joaquin Noyola, Mi Kyong Britt, Jay Jung, Tae Sun Webb, Jason Lee, Peter C Park, Kim Patrick Sheley, Intok Lisai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건축 계정	\$119,088.18	건축		교무금	\$10,040.00	주일 헌금	\$5,206.00
일반 계정	\$283,144.17					주일 총액	\$15,246.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40 명	수 41 명	목 37 명	금 34 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92 명	10시 442 명	12시 178 명	3시 58 명	주일 합계	770 명